불교미술 아티스트그룹 '핑크붓다'

"핑크색처럼 톡톡 튀는 불교로"

2012년 작가 6명서 결성
'불교의 현대적 해석' 모토
음향 미술 등 예술 총망라
국제전시회 참가가 목표

화려하고 대담함, 활기를 의미하는 '핑크'. 금빛이 아닌 핑크빛 부처님은 말 그대로 진취적인 불자를 상징한다. 그래서일까.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의 행보는 과감하고 도전적이다.

"보통 부처님과 핑크색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 또한 고정관념이라고 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불교는 이런 것이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습니다."

2012년 결성된 '핑크붓다'는 지금까지 6번의 전시를 진행해왔다. 서울대병원에서 환우들의 소원을 담은 핑크색 쪽지로 작품을 만든 '꿈을 붓다'전, 뱀의 탈피와 불교예술의 미래를 표현한 '뱀은 봄에 탈피를 한다'전 등은 화제를 모았다.

불교를 재해석한 전시를 위해 프로젝트마다 설치미술, 음향 전문가 등이 합류하는 것이 핑크붓다만의 특징이다. 각 프로젝트마다 새롭게 참여하는 멤버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 중심에는 핑크붓다 대표인 조수연 대표(38)가 있다. 동국대 불교미술학과를 나온 조 대표는 2002년 개인전을 준비하며 미술계에서 불교미술이 소외 받는 것을 보고 울분을 느꼈다.

"'불교미술'에 대해 미술계에서는 종교미술이란 굴레를 씌우고, 불교계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하더군요. 불교계 안쪽으로 보면 전통의 재현에만 갇혀 있었다고 봅니다. '과감히 현대화 작업을 해보자', '일반인들에게도 불교가 이런 모습이 있음을 알리자'고 생각했죠."

프랑스 유학 후 귀국한 조 대표는 프랑스에서 아트디렉터로 활동하는 이명아 씨와 전통가구 전문가 이정은 씨, 동양화 전공 전경희 씨, 서양화 전공 정윤영 씨, 대중미술 전문가 허효진 씨 등을 하나 하나 포섭했다. 여기에 객원으로 음향전문가 정금률 씨도 참여했다.

핑크붓다는 예배의 대상이나 교화 수단으로써의 불교미술을 벗어나고자 한다.

"불교가 발생하고 발전하며 초기 가르침은 사라지고, 형식만이 남아 현재의 불교는 그 형식을 추앙하며 좇고 있습니다. 불교는 대중을 수용하며 불교 정신을 알려야 해요. 종교라는 무거운 주제로 대중이 다가서기 어려운 권위적인 불교가 아닌 친숙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전시로 한국에 이런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핑크붓다 작가들은 "이런 우리의 활동이 불교미술을 선양해 작가들이 작품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계로 향한 핑크붓다의 모습에서 전법에 나선 부처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친다. **노덕현 기자**



핑크붓다 회원들이 불교미술의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엄지척'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경희 씨, 조수연 대표, 정금률 씨.



서울대병원서 열린 '꿈을 쌓다展'에서 드림 페이퍼를 탑에 부착하는 환우들의 모습.

"시니어 불자 NO, 디지털 불자라 불러주오"

100만 파워블로거 '이기룡 씨'

일간지 사진기자 은퇴 후
봉은사서 깊은 감동, 발심
불교행사 소회 블로그에
콘텐츠 가공 필요성 강조

인터넷 등 디지털 라이프를 즐기는 젊은 어르신들을 칭하는 신조어 '디지털 시니어'. 이기룡 씨는 최근 가장 잘 나가는 '디지털 시니어' 중 한 명이다. 일흔의 나이에도 매일 불교계 행사 현장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는 이 씨의 열정과 의욕은 젊은이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 씨에게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젊은 시절 언론사 사진기자로 활동했던 이 씨는 2011년 2월 퇴직 후 네이버 블로그 '바람의 언덕, 길 위의 풍경'(blog.naver.com/gainnal0171)을 운영하고 있다. 이 씨가 블로그를 개설한 것은 퇴직을 앞둔 2011년 1월이다. 30년이 넘은 사진기자 활동을 마치며 제2의 인생을 기획하면서부터였다.

개설 후 5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씨의 블로그를 다녀간 누적 방문객은 100만 명에 육박한다.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꾸준히 다녀갔다는 얘기다. 그가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대부분이 불교에 대한 이야기다.

이 씨의 블로그에는 전국 방방곡곡 사찰을 누비며 본 신행 현장의 생생한 모습이 담겨있다. 최근에는 관심분야가 확대돼 다양한 풍경과 명시 읽기, 문화예술에 대한 리뷰도 소개하고 있다.

그 시작은 2010년 아내가 다니던 봉은사를 우연히 방문하면서부터다. 이 씨는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사찰에 오니 마음이 편했다. 법당에 걸린 주련의 내용이 모두 내 얘기였다"며 말을 풀어냈다.

"기자로 일할 때는 불교에 대해 좋은 일은 접하는 것이 드물었어요. 막상 알고 나니 너무나 좋은 겁니다. 짧은 법문 문구 하나 하나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블로그에 불교 관련 글을 올리기 시작한 계기죠."

이 씨가 블로그를 가꾸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상상 이상이다. 단순히 어느 사찰의 행사가 어떻고 하는 식의 글이 아니다. KBS와 JTBC 등 주요방송에 나오는 불교 관련 내용을 비롯해 생활 곳곳에서 접하는 불교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실었다.

"블로거로서 젊은 사람들이라면 20분이면 될 일을 하나 하려면 2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4~5시간 걸린 일을 키를 잘못 눌러 몽땅 날아가 하루 종일 매달려 있기도 해요. 그래도 블로그에 정성을 들이니 애착이 갑니다."

이 씨는 현재 파워블로거 활동과 함께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부 홍보담당 역할과 봉은사 시민기자단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무릎이 안 좋아 쉬고 있지만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동반주 봉사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을 돕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함께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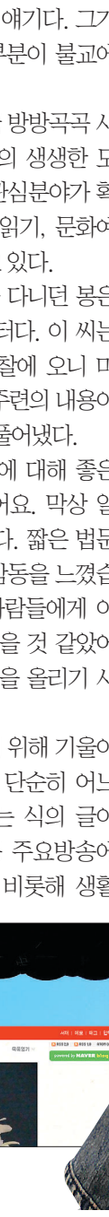
이 씨는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던 불교의 매력을 나이가 드니 알게 된다. 이제 3000배 등 신행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부처님의 경전 내용이나 스님들의 법문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이 씨는 다른 시니어 불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내가 어디서 뭘 했었는데' 하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과 소외되죠. '하심'으로 함께 어울려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씨는 불교를 새로운 콘텐츠로 가공해 전하는 일에도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아직 불교계에는 이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참 좋은데...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구요. 젊은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금강경 얘기 해봐야 알아 듣는 사람 몇 없어요. 주변의 불교 요소 하나 하나를 요즘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게, 관심을 가지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덕현 기자**



이기룡 씨의 블로그 '바람의 언덕, 길 위의 풍경'



이기룡 씨가 그의 또 다른 눈이 되고 있는 카메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호거산 운문사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장 명 성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 진
운문사 주지 진 광

대중일동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TEL 054)372-8800 FAX 054)371-0359
www.unmunsa.or.kr

www.samkwangsa.or.kr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힐링사찰 삼광사
좋은 일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삼광사 주지 김 무 원 스님 외 사부대중 일동 합장-



천태종삼광사 신도회 창립 47주년 기념대법회
• 2016년 11월 1일 오전 10시 삼광사 지관전

삼광사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 영산재 : 2016년 11월 18일 (음. 10월 19일)
• 수륙재 : 2016년 11월 19일 (음. 10월 20일)
• 예수재 및 회향 : 11월 20일 (음. 10월 21일)

대한불교 천태종 힐링사찰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051)808-7111~6 F.(051)803-1332